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는 냉장고는 엄마를 닮았다.

엄마가 웃으면
냉장고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엄마가 화가 나면
냉장고에서 찬바람이 쌩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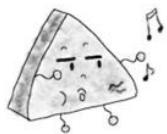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
엄마, 괜찮은 거예요?





侑 냉장고

글·그림 허예영





글·그림 허혜영

엄마가 되어 아이와 함께 그림책 세상을 만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림책 세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림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마음 냉장고

글·그림 허혜영

초판 1쇄 발행 2022년 11월 30일

이메일주소 82hare@naver.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eohyeyoung8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관악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 <1관1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 냉장고

이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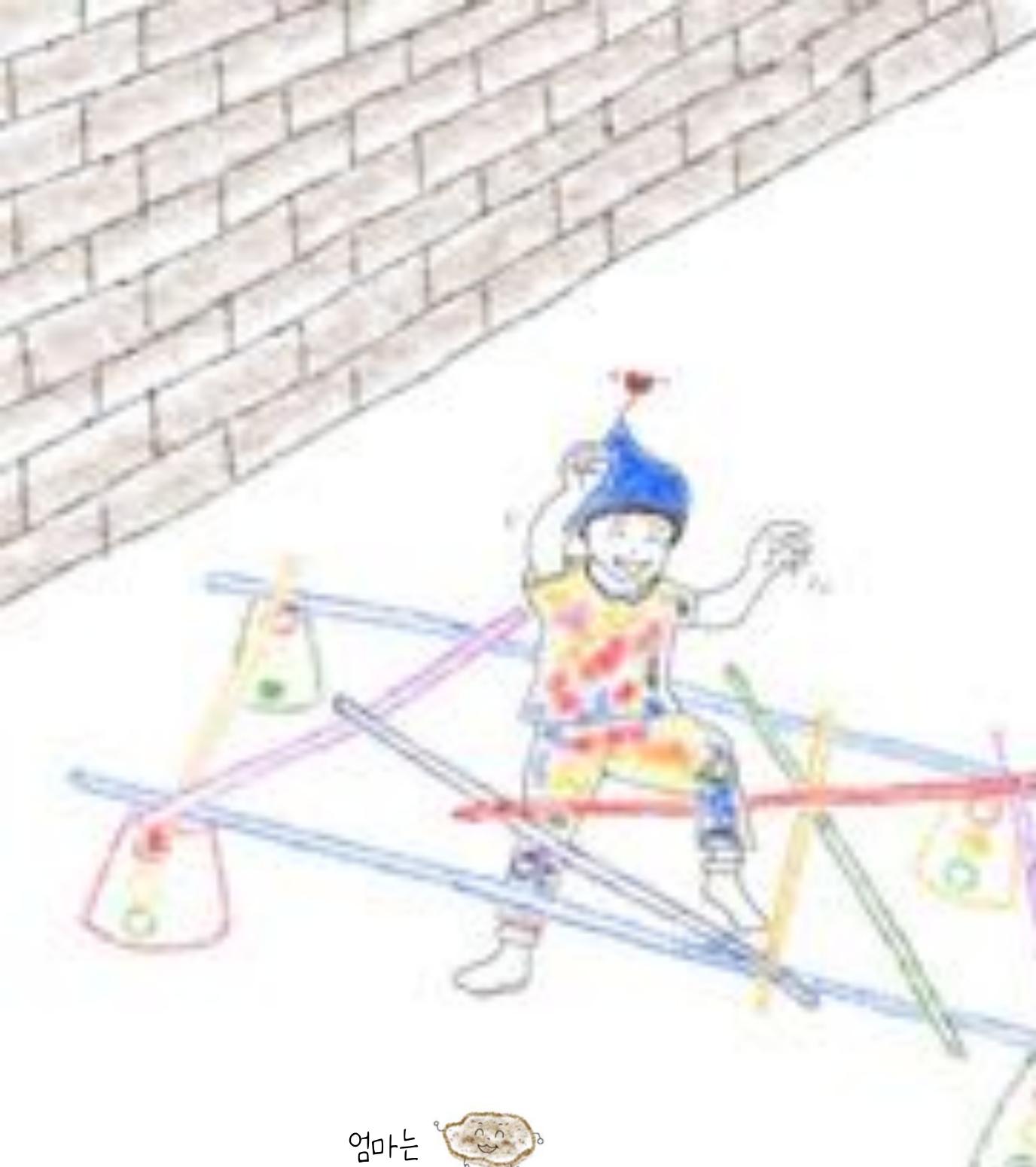
벚꽃잎 꽂비 내리는 눈부신 아침.

살랑 살랑 봄바람이 머무는
바람골 언덕에
예쁜 통통이가 태어났어요.





아빠는
내가 따뜻한 봄을 담아서
마음이 참 따뜻하대요.



엄마는



내가 벚꽃을 담아서

매력이 팡팡 터진대요.

엄마가

"통통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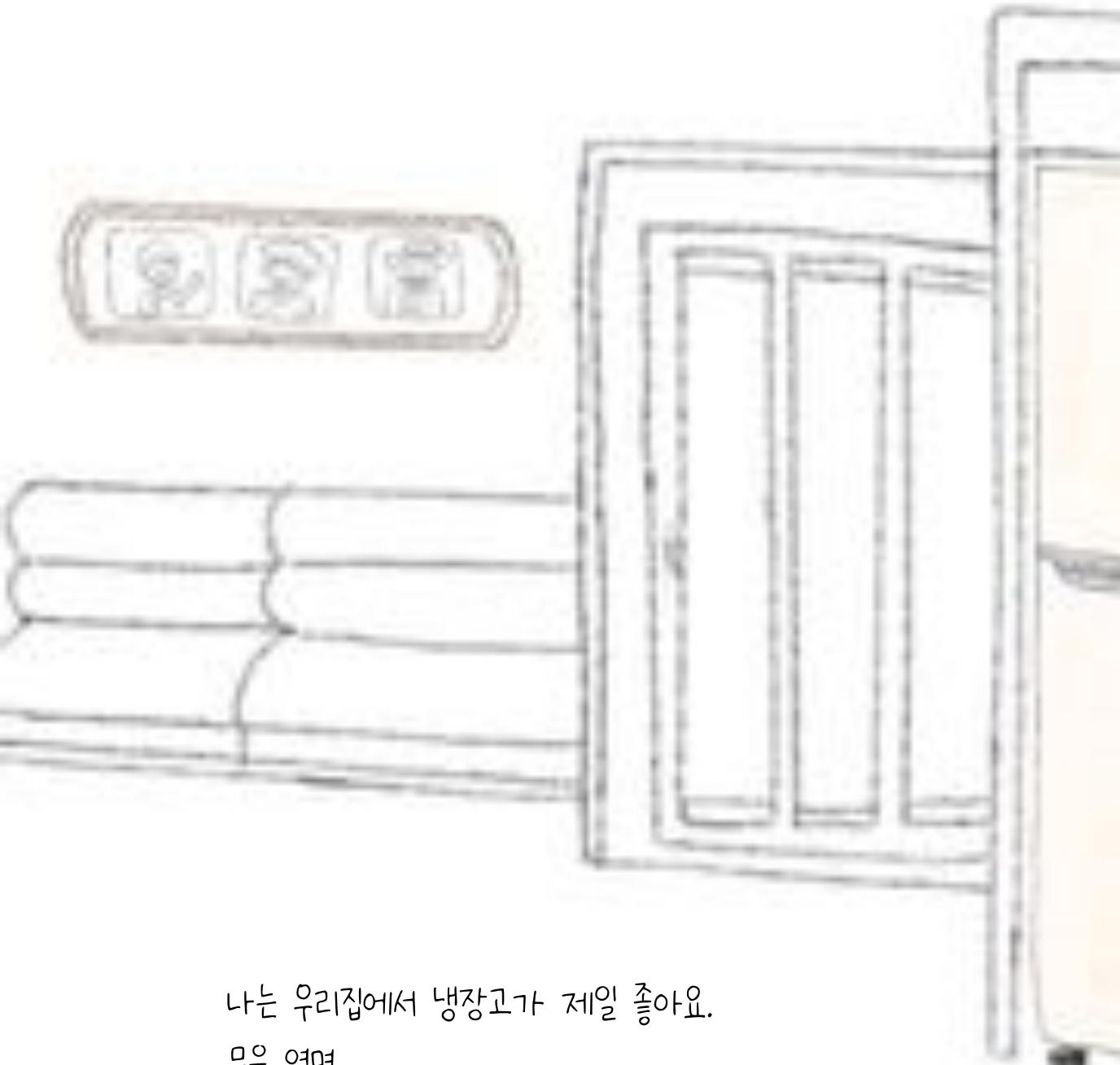


나는

"잘 먹고 잘 자는 힘센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나는 우리집에서 냉장고가 제일 좋아요.

문을 열면

띠띠띠! 인사하며 나를 반겨주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있으면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뜨르르 미끄러지는 땀방울을 씻겨줘요.

솔솔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는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를 울려요.





"어허허. 뭐 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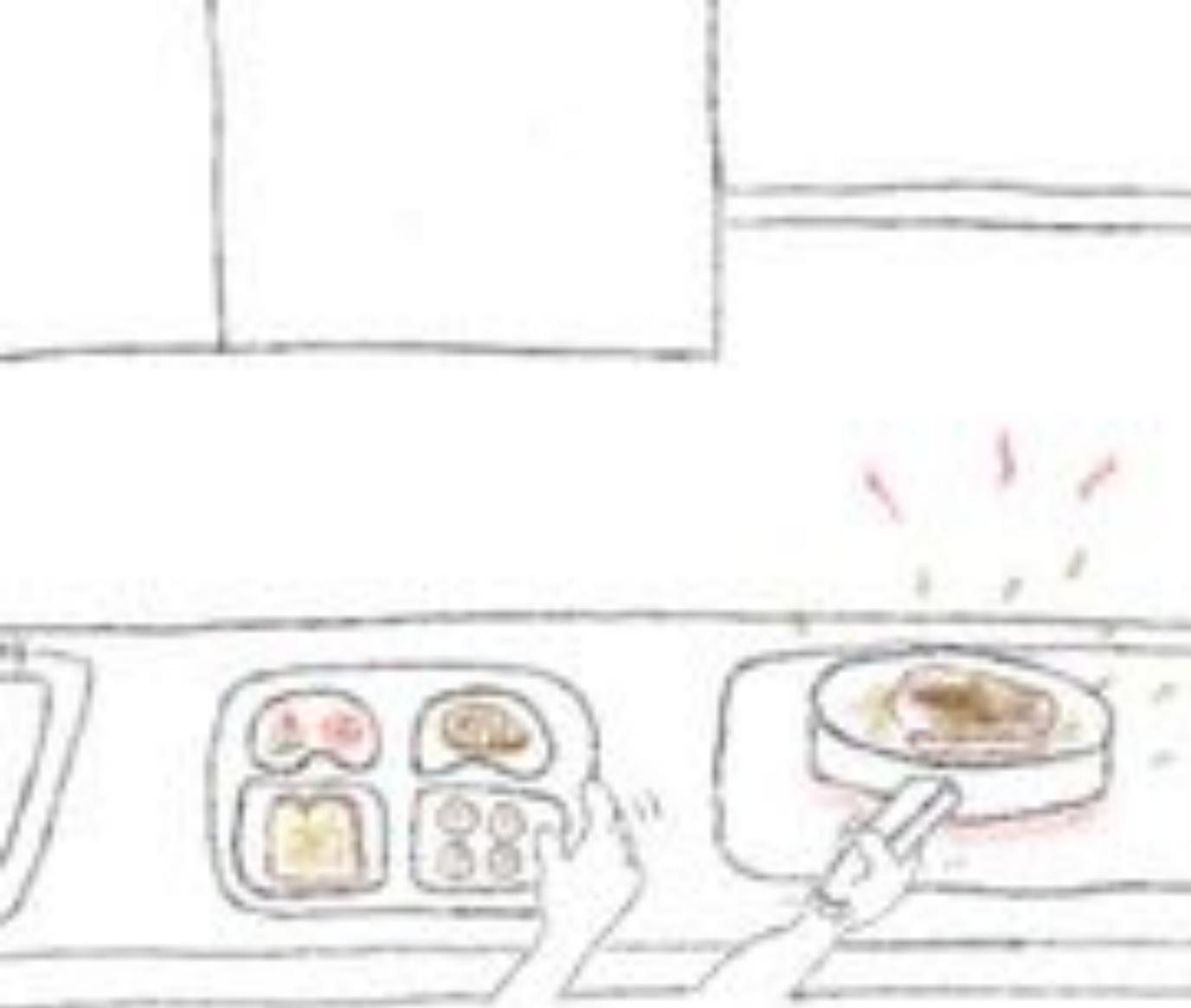


문어처럼

바쁘다

팔, 다리가 많았으면.....

바빠



그런데 엄마가 이제 냉장고 문을 열지 말래요.

내가 냉장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내 말 들려요?

하지마! 안돼!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슬퍼요"



꼬르륵 배꼽 시계가 오전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수하고 아침먹어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아침마다 나를
깨우고 깨우고 자꾸만 못 자게 해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나는 지금 너무 졸려요."





못 들은 척
두 눈을 감아보지만
나보다 훨씬 크고 힘센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입맛도 없고 너무 졸려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나는 지금 먹고 싶지 않아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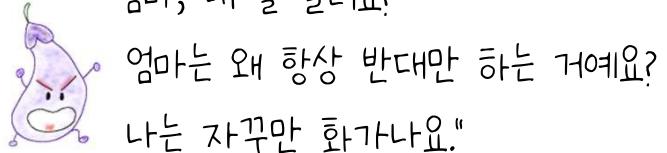
엄마가 이제 그만 가자고 해요.

약속 시간 됐다고. 저녁 먹어야 한다고. 자야 한다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는데…….

"엄마, 내 말 들려요?



엄마는 왜 항상 반대만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화가나요."

이렇게 계속 참고 지낼 수는 없어요.

"이놈 엄마. 그만 좀 해 !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뱉어 버렸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어!

어?

어!

어?



내사랑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된거지?

설마…….



엄마…….



엄마!

엄마!

꼬르륵 배꼽 시계가 오전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수하고 아침먹어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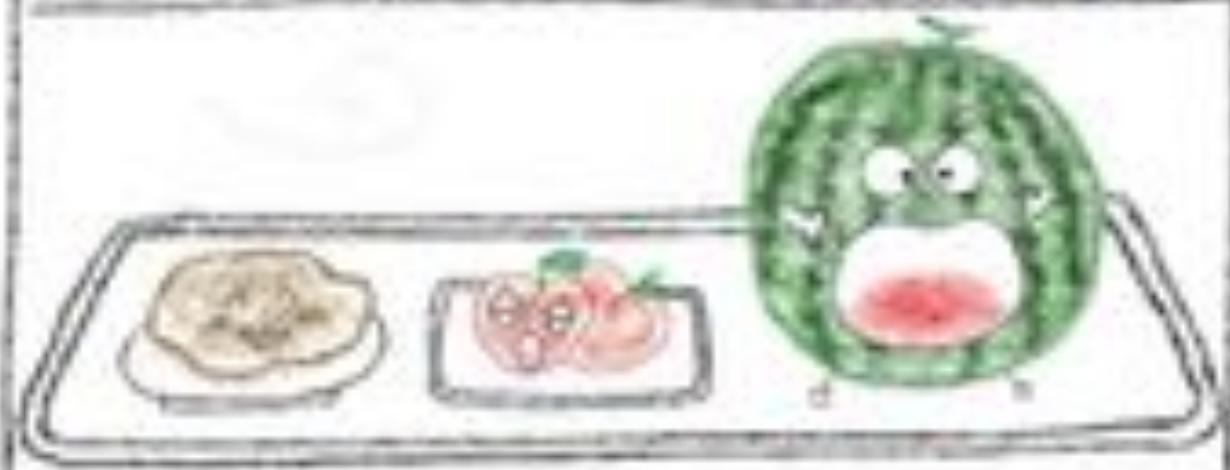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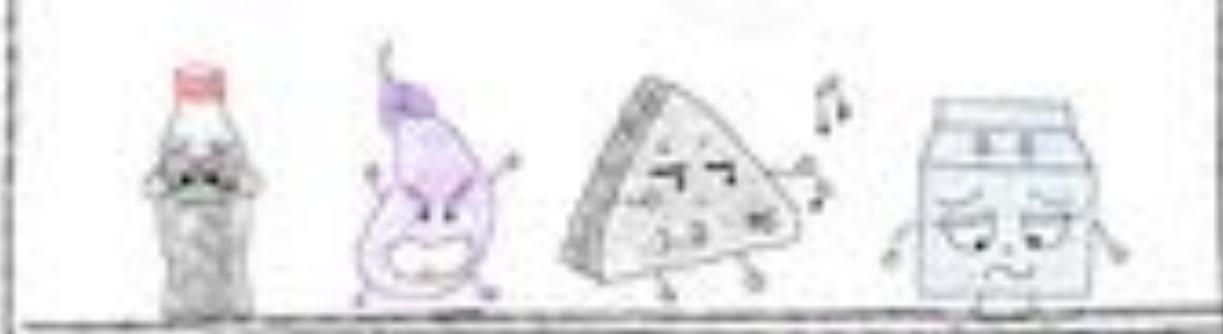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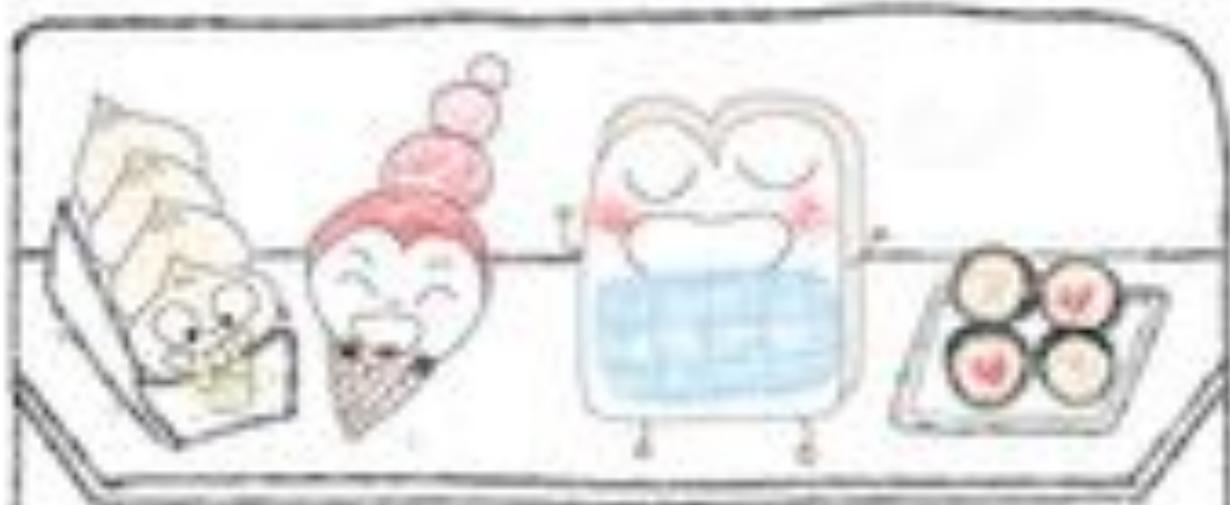
"엄마, 엄마, 엄마……."

"우리 통통이 잘 잤어?
내사랑.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응? 통통이 울고 있어?

아이쿠, 나쁜 꿈 꿨나 보구나.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안아 줄께!"





내사랑 냉장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예요.

"엄마,
밥먹기 전에 냉장고 잠깐 열어봐도 돼요?"

"응.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냉장고 문을 오래 열고 있으면
냉장고가 아프다고 '띠띠띠' 울지도 몰라.
울지 않게 잘 닫아 줄 수 있을까?"

"네!! 자신있어요."

"엄마 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의 메뉴

- 새콤 달콤 자두
- 시원 달콤 수박
- 사랑 들판 김밥
- 영양 들판 우유
- 노릇 노릇 토스트
- 바삭 바삭 돈까스

으와!
엄마
제가!



"통통이 배고프겠다.

얼른 아침 준비 해 줄까.

그런데 통통아

사실 엄마 지금 엄청 졸려.

우리 통통이도 많이 졸려?

자도 자도 자고 싶을 때

새콤 달콤

자두 한 입 어때?

잠이 좀 깰지도 몰라."





엄마도 나처럼
더 자고 싶고 같이 놀고 싶대요.

나는 엄마를 최고로 많이 사랑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의 마음이 들통 담긴 엄마 밥.
한 입 한 입
마음에 넣으면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오늘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